

그린에너지기술 국제협력 심포지엄 개최

- 2010년 국제공동 R&D에 70억원 투자, 올해 하반기 과제도출 -
- 국제기구 및 공동 프로젝트 동향, 우수 협력사례 공유 -

문의 | 지식경제부 에너지기술팀 (02-2110-5692)

■ 지식경제부는 '09. 7. 8(수) 서울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「그린에너지기술 국제협력 심포지엄」을 개최하였음

◎ 금번 심포지엄은 기존 4개의 에너지 R&D 전담기관이 에너지기술 평가원으로 통합된(5월) 직후에 개최된 것으로 지식경제부 김정관 에너지지원실장, 이준현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장, 주한 영국 및 일본 대사관 관계자와 산·학·연 전문가 3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

◎ 에너지기술 분야 국제기구와 국제 공동연구 동향, 국내외 우수 협력 사례를 공유하고 국제협력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를 진행하였음

■ 지식경제부는 이번 심포지엄을 통해 현재 에너지기술 국제협력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제시하였음

① 2010년에 CCS, 청정석탄기술 등의 국제공동 R&D를 위한 별도 예산 약 70억원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

* '08년 에너지 R&D 5,118억 중 국제공동R&D는 31억(10개 과제)로 0.6%에 불과

- 국제에너지기구(IEA) 등 다자 협력체 내 국제공동 프로젝트에 기업, 출연연구소, 대학 등의 참여를 지원하고 전략과제 기획 및 과제 수요 발굴을 통해 R&D의 글로벌화 유도

② 국가별 에너지기술 및 산업동향 분석을 바탕으로 그린에너지 기술개발 전략 로드맵과 연계된 국가별·기술별 국제협력 마스터 플랜 수립 추진('09. 10월)

③ 국제협력 활동을 통해 획득한 정보의 공유를 활성화하기 위해 '에너지기술 네트워크' 홈페이지를 개설하고 에너지기술평가원이 운영

* IEA 정보교환 프로그램을 통해 미, 영, 독, 캐 등 16개국 기술DB와 연계

* 현재 IEA, APP 등 7개 다자간 협력체 내의 37개 세부 분야별 협력 프로그램에 30여명의 전문가들이 정부의 승인을 얻어 대표로 활동 중

④ 향후 국제공동 R&D 사업의 체계적 운영 및 신속한 의사결정을 위해 국제협력 자문단을 구성하며 특히 전문가주요 국가별 전문가 등도 적극 영입 추진

■ 김정관 실장은 에너지 분야는 에너지 안보, 인프라와 관련이 깊고 대규모 실증(demonstration) 프로젝트가 많아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며 국제협력은 기술개발 전략의 하나임을 강조하였음

◎ 또한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추진되는 국제협력에 대한 국내 인지도가 낮으므로 기업과 연구자들이 국제 공동연구 동향에 관심을 가지고 적극 참여하기를 기대하며

◎ 향후 수립될 국제협력 전략에 따라 국제공동 프로젝트를 도출하고 관련 R&D 예산을 확보하는 등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음